

60여 종목 동호회 활동 배구 클럽만 2000여개

광주 생활체육 현황

태권도 인구 2만2000명 최다
배드민턴·축구·야구도 활발

광주광역시 생활체육 동호인은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활력을 올리며 '스포츠 건강 도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현재, 생활체육 종목이 약 60여개가 있는 만큼 동호인의 인원수와 클럽의 수가 상당하다. 검도, 게이트볼, 롤러스케이트, 무에타이, 합기도 등은 구별로 다양하게 분포된다. 전체적인 클럽의 수는 태권도(314개), 야구 소프트볼(176개), 축구(162개) 순으로 많고 동호인의 수는 태권도(22,779명)가 생활체육 종목 중 가장 많은 인원이 활동하며, 배드민턴(7,079명), 축구(6,893명) 순으로 다양한 인원이 인프라를 구축한다. 이 외에도 다양한 종목들이 자리를 잡아 자신의 일상에 건강함을 더하고 있다.

지난 10월25일, 광주광역시에서는 시민들을 위한 종합체육대회인 '제34회 광주광역시 시민 체육대회'가 3년 만에 개최됐다. 이번 대회는 영주종합체육관에서 이틀간 진행되었으며 광주시체육회가 주최하고 5개 구 체육회가 주관했다. 15개 종목인

게이트볼, 축구, 테니스 등 종목별 경기와 줄다리기 등 화합 경기에 2,500여 명의 동호인들이 참가했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파크골프, 에어로빅합합, 족구, 소프트테니스 등 개최 종목에 추가해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대회는 생활체육의 '축제의 장'이자 앞으로의 '스포츠 건강 도시'를 향한 광주시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스포츠 건강 도시로 더 확장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시민들에게 다양한 스포츠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공공스포츠클럽'을 시행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잠시 주춤했던 '공공스포츠클럽' 참여자 수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시민들의 생활체육 활동이 증가하면서 2020년 15만8000명에서 2021년 31만9000명으로 두 배가량으로 늘어났다. 공공스포츠클럽은 광주거점스포츠클럽, 광주다운스포츠클럽, 광주빛고을스포츠클럽 등 총 10곳이 운영되며 배구, 테니스, 유도, 축구, 탁구, 태권도, 농구, 양궁 등 23개이다.

올해, 광주시는 시민 스포츠 복지를 더 강화하고, 참여율을 높이고자 공공체육시설을 대폭 확충한다. 광주시의 공공체육시설 구축정책은 적극적인 국비 공모 사업 추진을 통해 공공체육시설 인프라 확대,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한 특화 공공체육시설 확충, 노후된 시설들을 보수해 기능성 제고 등 3



지난 9월 24~25일 광주 서구 영주종합체육관 등 15개 경기장에서 2500여명의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참가한 가운데 제34회 광주시민체육대회가 열렸다.

가지 방향으로 추진한다. 이에 광주시는 현재 2300억원을 투입해 22개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 가운데 13개소가 연내 새롭게 문을 연다.

특히, 이번 8월에 상무시민공원과 무등경기장에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가 생겼으며, 연말에는 평동산단과 빛그린 산단에 개방형 다목적체육관이 준공될 예정으로 많은 시민과 근로자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소중한 체육 공간이 제공될 예정이다.

또한, 고령화 시대에 맞춰 어르신의 건강과 활력 증진을 위해 특화 공공생활체육시설인 파크골프장과 그라운드 골프장이 늘어날 예정이다. 현재 광주시에는 6개의 파크골프장(영주, 첨단체육공원, 대상파크, 효령, 덕흥동, 서봉)과 1개의 그라운드 골프장(운남)이 있다. 파크골프장이 동구 소재동에 추가로 개장하였으며, 광주시 최초 36홀 구장인 광산구 서봉 파크골프장이 보수하여 개장됐다. 이어

일곡 근린공원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공사도 추진될 예정이다.

하지만, 실내 종목 동호인은 학교체육시설 이용에 있어 하소연이 있다. 학교체육시설은 학생들의 수업이 없는 야간이나 주말에 개방해왔으나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경 이후 개방을 중단했다. 현재 학교체육시설은 운동장을 개방하였으나 학교장의 재량에 완전히 개방되지 않아 실내 종목을 이용하는 배드민턴과 같은 실내 종목 동호인들이 줄어든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원활한 생활체육을 하려면, 학교체육시설 부족으로 운동을 즐기는데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광주광역시 장애인 생활체육 동호회는 현재 13개의 종목으로 여가생활을 위한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하며, 광주광역시 장애인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장애인 체육회는 '찾아가는 생활체육'이라는 생활체육 서비스를 제공해 장애인생

활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에 광주시는 장애인 생활밀착형 '반다비체육센터'를 3개 건립한다. 반다비체육센터는 생활권 내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장애인의 우선 이용을 보장하며 비장애인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통합 체육시설이다. 광주광역시 장애인 체육활동 증진을 위해 남구 반다비체육센터(월산근린공원 내 위치)와 북구 반다비체육센터(광주교대 내 위치)는 올해 개관했으며, 서구 반다비 체육센터는 24년에 개관될 예정이다. 광주지역 7만여 명의 장애인들에게 생활체육 지원과 시설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광주광역시 스포츠 건강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스포츠 복지, 평생교육, 평생체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체육시설 구축 등 노력하고 있으며, 원하는 광주시민 누구나 스포츠를 즐기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다.

/김민주 학생기자

광역시 생활체육 자치구별 동호인 현황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동호인 합계	클럽 수 합계
검도	208	198	178	192	187	963	32
게이트볼	66	100	108	167	101	542	48
궁도	54	0	72	0	0	126	10
농구	0	262	138	174	77	651	29
댄스스포츠	104	65	0	0	120	289	17
롤러스케이트	0	170	0	0	111	281	14
무에타이	85	120	157	313	66	741	27
배구	113	557	237	284	825	79	2016
배드민턴	520	1781	997	1941	1840	7079	152
복싱	100	153	140	210	0	603	29
볼링	447	438	668	173	168	1894	82
산악	60	445	1300	65	92	1962	38
수영	120	180	115	105	94	614	36
승마	30	0	0	0	0	30	7
야구소프트볼	413	808	510	860	1840	4431	176
축구	150	318	120	360	580	1528	56
탁구	1028	893	1371	1200	2401	6893	162
탁구	84	965	213	1100	750	3112	55
태권도	1300	2209	3840	11930	3500	22779	314
택견	122	0	113	0	0	235	14
테니스	264	1059	701	1100	710	3834	113
파크골프	100	133	169	300	500	1202	21
합기도	175	642	305	630	285	2037	34

'국위 선양 체육'은 옛말...즐거이는 스포츠 시대

엘리트 체육은 재능 있는 사람들을 배출해 전문적인 체육 지도자에게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아 국제대회 등에서 메달 획득의 가능성을 높이는 체육을 말한다. 2차 세계대전 후,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국가 간의 대립으로 엘리트 체육은 체제의 우월성을 겨루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해 전 세계적으로 성장했다. 이 시기 이후에도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스포츠 과학이 발전하게 되는 계기가 되어 지금의 엘리트 체육으로 자리를 잡았다.

우리나라는 1971년 박정희 정권 시기에 전국체전을 중심으로 엘리트 체육 시스템이 형성되었다. 이후, 국가는 체육특기자 제도를 통해 병역 혜택 등을 주었고 국가대표 집단 훈련시설인 태릉선수촌이 탄생했다. 또한 국제대회에서 메달을 딴 엘리트 운동선수는 국가 위상을 드높인 애국자로 명예와 부를 주었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은 엘리트 체육 정책의 발판이 되어 한국 스포츠의 국제적 위상은 크게 발전했다.

하지만, 엘리트 체육의 그림자는 컸다. 운동선수

는 성적과 메달을 딸 수 있는 선수 위주로만 돌아갔기에 운동의 즐거움이나 개인적 성취 대신에 국가를 대표한다는 의무와 책임만이 뒤따라 많은 부작용이 나타났다. 청소년기 선수들의 경우는 운동 이외의 다른 교과 과정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고, 선수 생활을 중도 포기하거나 은퇴하는 상황이 온다던 큰 혼란을 일으킨다. 이러한 혼란 속에 나온 것이 '생활체육'이다.

생활체육은 1950년대 미국과 독일에서 유행한 진보적 교육사상의 영향을 받아 체육활동에서 즐거움을 추구한다는 목표에서 나왔다. 국위 선양을 명분으로 엘리트 체육 육성에 치중하고 생활체육은 상대적으로 소홀했기에 엘리트 체육의 비율만 커지는 불균형이 생겼다. 스포츠가 단순히 소수 엘리트으로 변화하는 스포츠 선진국으로서의 패러다임 전환이 절실한 이유다.

독일은 국민 세 사람 중 한 사람이 스포츠 클럽 회원일 만큼 대표적인 생활체육 선진국이다. 독일

의 생활체육 정책인 '골든 플랜'은 15년간 두 차례에 걸쳐 추진하여 사람들에게 많은 참여 기회를 제공했다. 1961년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은 "미국 민주주의의 힘은 크지만, 운동을 통한 건강한 복지 사회는 민주주의보다 훨씬 강하고 우선한다."라는 말을 한 만큼, 생활체육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현재, 우리 정부에서도 다양한 생활체육 정책을 내놓고 있다. '2030 스포츠 비전'을 발표하며 공공 스포츠 클럽 시스템을 정착해 모두에게 건강한 삶을 누리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중이다. 또한 우리나라에도 종목별 동호회, 스포츠 클럽이 활동 중이며 대회도 활발하게 개최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 생활체육 시스템을 직접적으로 느끼기엔 부족하다. 정부는 시민들에게 다양한 스포츠를 접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도 확충에 나가고, 운동을 즐기지 못하는 소외 계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생활체육 지원도 해야 한다. 또한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이 균형 있게 토대를 마련해 발전해야 한다.

/김민주 학생기자

**프로들의 현장을 방불케하는
실습, 실습, 실습**

실무에 즉시투입 할 수 있는 인재를 배출합니다.

호남대학교 신문방송학과
HONAM UNIVERSITY